

5/7(토) 대하 21-24장 잔혹한 죄의 여운

여호사밧이 맺은 혼인 동맹은 잔혹한 죄의 여운을 남깁니다.

며느리 아달라로 인하여 왕국 전체가 아합의 길을 걷게 되고(21:6),

아들로부터 증손자(여호람, 아하시야, 요아스)까지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.

아달라와 혼인한 여호람은 형제와 유력자 모두를 살해했습니다(21:4).

자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아합의 길을 걷도록 미혹했습니다(21:11).

죄와 불순종은 곧 저주와 적들을 불러옵니다(21:10,16-17, 22:1).

여호람은 재물과 가족을 잃고 고통스런 질병으로 사망합니다(21:15,18-19).

“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(21:20).”

아하시야 역시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을 받습니다.

아합의 길로 행한 아하시야는 곧 아합의 집과 함께 멸망합니다(22:7).

이에 아달라는 왕실 후손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(22:10,12).

요아스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왕위를 잇게 됩니다(22:11-12).

강성함을 꾀한 동맹이 오히려 왕실의 존속 자체를 흔든 것입니다.

역대기는 요아스를 개혁자 명단에 올리지 않습니다.

요아스 개혁의 숨은 주역을 여호야다로 보기 때문입니다(22:11, 23장).

여호야다 제사장은 죽을 위기의 요시야를 구하고 불법적인 왕위 계승을 막았으며
규례대로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하나님의 도로 치리하도록 도왔습니다.

여호야다가 생을 마쳤을 때 왕과 백성들은 불법으로 돌아섭니다(24:17-18).

요아스는 영으로 직언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처형했습니다(24:21-22).

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은혜를 피로 갚은 것입니다(24:22).

요아스는 결국 적들에게 패하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(24:24-25).

“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(24:20)”

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?

❶ 바른 선택으로 주변과 공동체에 유익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?

❷ 잘못된 선택으로 오랜 기간, 모두를 힘들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하 21-24장